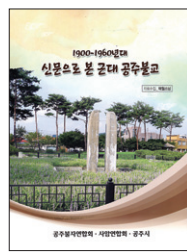


# 공주 불교 역사 한눈에 본다

## 공주불자聯 <1900...> 발간



계룡산 감사 팔상전 내에는 계룡풍덕원이 라는 공주 최초의 고아원이 있었다. 복덕월 보살이 경영하는 이곳에는 70여 명에 달하는 아이들과 노인이 있었다. 그녀는 아이들을 삼국학교를 보내고 결혼 연령에 달하는 이들은 시집장가를 보내주었다.

공주 지역 근대 불교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책자가 발간됐다. 공주불자연합회(회장 김국환)와 공주불교사암연합회(회장 중하,



공주불자연합회는 <1900~1960년대 신문으로 본 근대 공주불교>를 펴내고 찬란했던 불교문화유산을 세상에 알리고자 했다. 사진은 1960년대 마곡사 스님들의 모습.

기 때문이다. 이번 책자 발간을 통해 많은 분들이 지역 불교계의 역사도 알아주셨을 것이다.

이 책에는 계룡산 감사 복덕월 자비행, 마곡사 본말사 기사 모음, 공주불교 포교당 등의 기사를 한눈에 볼 수가 있다.

특히, 1920년대 공주불교 포교당은 능인 약학 운영 등 1천 여명의 대중들이 모임 만큼 왕성한 활동을 했다고 한다.

스님은 "자료를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쉽지가 않았다. 다행히 출판사에 다니는 신도의 도움을 얻어 신문 검색 기능을 알게 되어 풍부한 자료를 찾을 수 있었다. 하지만 사진 자료 등은 많이 아쉬웠다. 특히 90대의 노스님을 찾아 갔더니 신변을 정리하며 두 달 전에 사진을 태웠

다고 하더라. 정말 그때는 참 난감했다"고 당시의 상황을 전했다.

공주불자연합회 김국환 회장은 "공주지역은 마곡사 신원사 감사 동학사 등 천년고찰과 문화유산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 특히 충청남도 도청 소재지로 1932년 도청이 대전으로 이전 되기 전까지 충남 불교문화의 본산지로서 지역사회를 위해 불교계에서 필진 활동상은 수없이 많다. 이번 발간을 계기로 찬란했던 불교문화유산을 보존·계승·발전시키는 일에 더 매진하겠다"고 의지를 전했다.

공주불자연합회는 앞으로 1960대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공주 불교 역사를 정리한 책자도 함께 발간할 예정이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 이웃 종교에 비해 역사 빈약

### 지역 불교 자료 남기고자 기획

신원사 주지), 공주시(시장 이준원)는 <1900~1960년대 신문으로 본 근대 공주 불교>를 펴내고 찬란했던 공주의 불교문화유산을 담아냈다.

135페이지에 달하는 이 책자는 원효사 주지 해월 스님이 기획하고 자료수집 편집 등을 담당했다.

해월 스님은 "그동안 공주시가 편찬한 지역 책자에는 이웃 종교에 대한 내용은 많은데 불교 이야기가 거의 없었다. 사실 불교계 활동이 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책자에 실리지 않은 것은 자료가 없었

# "부산 불자 화합 단결에 최선"

## 부산불교승가聯 창립

부산지역 '초종파 스님'들의 모임 사단법인 부산불교승가연합회가 창립됐다. 부산불교승가연합회는 12월 7일 부산 삼광사 지관전에서 창립 법회를 열고 이사장으로 삼광사 주지 화산 스님을, 초대회장으로 대한불교원효종 총무원장 범민 스님을 추대했다.

이번 법회에서 부산불교승가연합회는 부산불교연합회의 연등축제, 사명대사 추모행사, 팔관회 행사 지원 등 부산지역 종단간 화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사장으로 취임한 삼광사 주지 화산 스님은 "종단과 사찰을 대표하여 모인 승가는 갈등과 분열을 넘어 부산의 모든 시민과 불자가 화합하고 단결해 서로를 존중하



부산지역 '초종파 스님'들의 모임 사단법인 부산불교승가연합회가 12월 7일 창립했다.

고 빛내줄 수 있는 진정한 부처님 제자로 거듭나지"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초대회장으로 취임한 대한불교원효종 총무원장 범민 스님은 "부산지역 스님들이 마음을 모아 범종단적 승가연합체를 탄생시켰다. 부산불교와 한국불교를 이끌어

가는 과수꾼이 되자"고 말했다.

증명대법주 정각스님은 회장 범민스님을 비롯한 임원진에 임명장을 수여했으며, 이사장 화산스님은 연말연시 이웃돕기 성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정혜숙 기자

## 영남불교 봉사단 '임정회'...송년법회 개최

포항과 경주, 영덕 등 경북 동해안 지역 스님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영남 불교 봉사단 '임정회'가 12월 10일 포항의 한 음식점에서 창립 후 첫 번째 송년 법회를 가졌다.

이날 송년법회에는 '임정회' 소속 스님과 신도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승호 포항시장, 이병석 국회의원, 이철규 포항시장, 채중훈 포항불교신도단체연합회 회장 등 기관과 관련 단체장들이 함께 자리했다.



영남불교 봉사단 임정회는 지난 4월 창립 해 지역 복지시설 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곳에 방문 봉사와 지원활동을 해오고 있다. 손문철 대구 지사장

## 해인사, 화엄21천도법회

### 17일 해남 스님 초청

조계종 제12교구 본사 경남 합천 해인사는 12월 17일 오전 11시, 경내 대적광전에서 제5회 화엄21천도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법회에는 통도사 율주 해남 스님을 초청해 법문을 듣는다. 또 불자들이 여든 장의 '화엄경 변상도'를 49일마다 네장씩 사불해 완성한 변상도 20장을 전시하는 사불전도 경내 구광루에서 마련한다.

## 캠페인

### 렌즈속 현장 - 도량을 도량답게 가꾸자

## 사찰 조형물 불교적 의미 담아야

사찰하면 떠오르는 것은 무엇일까? 마당을 지키는 탑, 법당 안에 모셔진 불상, 부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경전, 눈이 맑고 단정한 스님, 스님이나 신도들이 들고 있는 108염주, 스님들의 묘탑인 부도, 마당에서 불을 밝히는 석등, 팔기외를 씌운 건물들, 길에 연달아 서있는 문, 연꽃이 가득 핀 연지 등이 생각날 것이다.

이렇게 사찰하면 기억되는 것들은 하나 같이 불교를 표상하는 상징물들이다. 이러한 상징물들은 불교가 교단을 이루고 사찰이 지어지면서부터 존재해온 것들로 지역에 따라서는 요소별로 조금씩 다르게 표현되는 것들도 있지만 부처님의 말씀을 물상(物像)으로 표현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근본은 다르지 않다. 이러한 불교적 상

징물들의 특징은 우리들에게 친근하게 여겨질 뿐만 아니라 예측 가능한 장소성을 가진다. 즉, 오래전부터 우리들에게 익숙하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거부감이 없고, 어디에 가면 무엇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경관적 정체성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말이다. 따라서 우리에게 생경하게 받아들여지고 그것이 왜 이곳에 있는지 모르겠다 싶은 것은 불교적 의미를 담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언제부터인가 옛 사찰에서는 볼 수 없었던 조형물들이 사찰에 들어서기 시작했다. 환하게 웃음을 짓는 포대화상이나 천진난만한 모습의 동자상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조형물들은 신도들에게 위안을 주고 즐거운 웃음을 만들어내는 것으

로 신앙의 대상은 아니지만 의미적으로는 불교적 상징성을 가진다.

대구에 있는 오래된 사찰에도 새로운 조형물이 하나 만들어져 있는데, 그것은 놀랍게도 악어가 입을 벌리고 다가오는 조형물이다. 악어는 보통 열대지방의 늪이나 강가에 서식하는 악어목의 파충류로 우리나라의 환경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찰에는 더욱이 인연이 없는 동물이다. 그런데 왜 이 악어가 사찰에 만들어져 있는 것일까? 아마도 신도들을 깜짝 놀라게 하여 신선한 즐거움을 주고 웃음을 선사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졌을 것이다.

사찰에 도입되는 조형물은 모두 불교적 상징성을 극명하게 표현하는 것이어야 한다. 물론 현대의 불자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새롭게 불교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조형작업은 매우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즐거움을 주고 사찰을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불교의 사상이나 교리에 맞지 않는 조형물을 도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사찰은 어디까지나 종교적 장소이기 때문이 **홍광표(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사찰조경연구소장)**



대구 사찰에서 볼 수 있는 악어상은 왜 이곳에 있어야 하는지 설명하기 어렵다.

불교대학에서 의식을 공부하시는 주지스님, 학인스님, 행자스님, 천도재, 상단불공, 시식 등의 의식을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많으시죠? 어려운 경전의 가르침을 이해하기 쉽도록 인도하는 첨단 불경 해석 학습기기!

불교계에 새로운 선풍을 일으켜 세울 혁신적인 휴대용 시청각 경전학습기 **아이센스** 탄생!



신제품  
경전학습기

## 보고 · 듣고 · 배우는~

### 첨단혁명의 간편한 휴대용 시청각 경전학습기!

불경을 일부씩 공부하다 보면, 일관성이 떨어지며 기억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아이센스 경전학습기**는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영상경과 영음의범을 일관성 있게 편집하여 탑재 하므로써 가르침을 받지 않고도 스스로 화면을 보면서 듣고 반복할 수 있도록 체계성과 정확한 강사의 음성을 들어 학습할 수 있도록 짜여진 시청각 경전으로 학습효과를 극대화하였습니다

#### 염불(念佛), 염승(念誦) 모음

##### ■ 염승경

반야심경, 천수경, 불설아미타경, 금강반야바라밀경, 원각경, 관세음보살보문품, 아산해연선사 발원문, 불설 약사여래본원경, 화엄경 보현행원품, 화엄경 약한계, 초발심자경문, 무상계, 의상조사 법성계, 장엄염불, 부모은중경, 백팔대참회문, 대불정능염신주, 지장보살본원경, 천지필양신주경, 보광삼매론

##### ■ 염승의범

송주편, 예경편, 불공편, 천도재 · 49재편, 시식 · 영반편, 장의편, 점안편, 이운편, 의식편, 기타편

#### 경전학습기에는 영어 · 중국어 · 일어의 회화기능 외 여러가지 부가기능까지~

- **통역기능** : 기존 번역기와는 차별화된 120문장의 정확한 4개국어 통역기능까지
- **회화강좌** : 영어, 중국어, 일본어 생활회화 강좌기능
- **전자사전** : 시중에서 25만원에 판매하는 전자사전과 동일한 콘텐츠 탑재
- **녹음기능** : 고성능 마이크 내장된 선명한 음질의 녹음기능

**네잎플러스 TEL. 1544-5618**

신청하시면 택배로 다음날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